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미瘴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힘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이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定)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義)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lleluya, 오늘도 성경의 놀라운 보도(報道)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성령님을 내주자(內住者), 인도자(引渡者), 정화자(淨化者), 증언자(證言者), 결실자(結實者)로 보아온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움을 계시(啓示)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端緒)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지면, 우리는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전반적인 모습을 더욱 이해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몇가지 질문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I 첫 번째 질문은,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목적(目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시작을 볼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1. 이 사실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의 연약(軟弱)함을 돋는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돋는다는 헬라어(sunantilambano)는 마치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드는 것처럼, 함께 들어 올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돋는다고 나서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리합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돋는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쪽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야 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돋는 한 다른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차도 기도하신다했습니다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배가(倍加)시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26절에서 <**성령이**> 라고 하지 않고 <**성령도**>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는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 불경(不敬)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정상적(正常的)인 질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부족함을 보완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적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적(內的) 교통(交通)** 또는 **소통(疏通)**입니다.(요한계시록 1:4-5).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돋는 자이시고, 그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II. 두 번째 관심적인 질문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정모드가 진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기도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는, 탄식(歎息)과 간구(懇求)라는 강렬한 용어가 담겨있습니다. <한탄> <탄식> <간구>라는 이 단어엔 에너지의 결집과 힘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형식적(形式的)이고 의례적(儀禮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대변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歎息)과 간구(懇求)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希望)입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4:30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은 구약성서 이사야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아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3:7-10)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을 근심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근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근심은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는 데로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6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이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뢰라.”

기도와 간구(prayer and petition)는 우리의 기도방식입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진지하게, 정상적인 평온함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론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급하고, 간절하게, 소리 높여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기도는 영적전쟁의 양상에 따라 긴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영적전쟁을 치루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소개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는 5번이나 기도라는 단어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강조합니다.

무엇이, 성령으로 하여금 이처럼 강한 간구(懇求)의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로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해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절 후반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망(亡)하지 않는 것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니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의 근거를 이룹니다. 아버지는 성령과 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기도를 할까?

III.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원리가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사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은 생각을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who searches our hearts)이신 하나님, 어찌 성령 하나님의 마음(the mind of the Spirit)을 모르시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셨기 때문일까요?

27절 하반 절은 그래서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예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입니다. (잠언 19:21)

로마서 12: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9-30절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29. 하나님이 미리 이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믿어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定)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義)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은 예지예정(豫知豫定)입니다. 이 용어에서 '豫知'(예지)는 '미리 알다'는 뜻이고, '豫定'(예정)은 '미리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정(定)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를 명목상의 자녀에서, 예수닮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고 합니다. 영어론 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青寫眞)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드림(dream)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과정(科程)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단어의 동사(動詞)들을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he also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쓴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그 분이 성취(成就)해낼 것에 대한 결과(結果)의 보장(保障)을 전제(前提)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삼위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정 (Predestination):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심을 의미합니다.

소명 (Calling): 하나님께서 때가되어 그들을 부르심을 뜻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심, 죄 사함과 의로 인정하심을 의미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만들어 그들을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뜻합니다.

이 네 단계는, 서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가 인내하여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는 '성도의 견인(堅忍)' 교리와도 연결됩니다. '견인(堅忍)'은 '굳세게 참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칼빈주의에서는 신자가 스스로 참고 견디다는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교리적 강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며, 그것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은 기도하시므로, 이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방황과 실패를 성도들이 겪을 것이지만, 성령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거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없이 진행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아야 연결이 됩니다. 이 점이 오늘의 핵심 적용 메세지입니다.

IV. 성령이 기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도(聖徒)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聖徒)를 위하여 친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힘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도(聖徒)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의 위치와 27절의 연결하면 성도=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라는 공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28절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성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사랑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유산(遺產)입니다. 성령의 기도야말로 성도의 영광(榮光)입니다.

유다서 1:20절에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후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맺음 :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인지함으로 나오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데서 오는 탄식은, 우리의 영(靈)에도 동일한 탄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의 탄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중보기도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성령님의 기도소리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기도의 단계에서 작용하는 거룩한 법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합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으로 하는 중보기도로 인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이 성장하듯, 성령님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돋는 사랑으로 우리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증언하며,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